

넓고 깊은 이탈리아 출판의 잠재력

아동도서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갖춰...
인문주의 전통에 기초한 전문출판 활성화돼

김시홍 | 한국외국어대 이태리어과 교수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은 아동출판계의 현황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행사면서, 세계출판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기도 하다. 이탈리아가 이처럼 아동출판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취학 전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전문출판이 활성화돼 있다는 것도 이탈리아 출판계의 특징이다.

볼로냐시는 매년 다양한 종류의 국내 및 국제전시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볼로냐피에레인데 구두 및 가죽, 섬유, 자동차, 와인, 산업기계류 등의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있으며 국제아동도서전도 이 기관이 주체가 돼 연다. 전시회 장소는 도시 북동부에 있는데, 32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18개 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다.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Fiera del Libro per Ragazzi)은 1964년에 시작돼 올해로 37회를 맞이했다. 81개국 1445개의 전문출판사들이 참가한 2000년 전시회는 3월 29일에서 4월 1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2001년 대회는 4월 4일에서 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아동도서분야의 견본시장

이탈리아는 이 밖에도 다양한 서적 전시회를 여는 나라다. 토리노 도서전, 비첸차 서적 박람회, 바리 서적 박람회 등이 유명하다. 이 가운데 국제적으로 가장 큰 명성을 얻고 있는 전시회는 볼로냐 아동도서전인데,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아동도서분야의 견본시장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문화교류 및 서적출판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행사로도 인정받고 있다. 전시회의 주요 참가대상은 아동 및 성인도서 출판사, 교재출판사, 아동용 멀티미디어 제작사 등이며 도서중개상과 삽화가들에게도 개방돼 있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상(www.bolognafiere.it/BookFair/cm_gb.html)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볼로냐 아동도서전의 출판분야 및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가장 중요한 부문인 아동도서상(Bologna Ragazzi Award)은 픽션(fantasy and imagination)과 논픽션(knowledge and contemporary issues)으로 나뉘며, 나이별로는 유아부(5세까지), 아

동부(6세에서 9세) 및 청소년부(10세에서 16세)로 구분된다. 이상의 구분은 이탈리아 국내 및 국제분야에 적용돼 당선작들이 결정된다. 매년 영역이 바뀌는 신예술상(New Art Award)은 금년의 경우 교육용 예술서적 부문이 채택됐다. 또한 유망한 신진출판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신지평상(New Horizon Award)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멀티미디어 부문에 대한 시상이 별도로 운영되며 아동도서 출판인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비경쟁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제 아동도서부문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2000년 대회 경우 5명으로 구성됐는데, 심사위원들을 국적별로 보면 이탈리아 2명(아동문학교수와 전문도서판매상), 프랑스(출판 전문사서), 영국(그래픽 디자이너), 독일(그래픽 디자이너)이 각각 1명으로 유럽 중심적이다. 국제부문에서 올해 선정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픽션 부문에서는 유아부에서 호주 린트필드사의 《큰 곰》, 아동부는 일본 후쿠이칸 쇼텐사의 《검은 외투의 사나이》, 그리고 청소년부에서는 프랑스 소일 저네스사의 《르 파샤》가 각각 수상했다. 논픽션에서는 유아부에서 일본 가켄사의 《놀이책의 왕》, 아동부에서 프랑스의 《대모험》, 청소년부에서 캐나다 스토다트사의 《싸우기에 너무 어린》이 선정됐다. 신지평상에는 이집트 다르 엘 쇼룩사의 《스무가지 이야기로 된 모하메드의 삶》이 수상했으며, 신예술상은 프랑스 소일 저네스사의 《황금 현대와 세 마리의 꿈》이 채택됐다.

볼로냐 아동도서전이 열리는 4일 동안에는 일반전시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아동출판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세미나와 국제회의가 이 기간 내내 열려 활발히 의견을 교환한다. 이탈리아 교육부장관의 기조연설로 시작되는 각종 회의는



이탈리아가 유독 아동출판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데는 취학 전 교육을 강조하는 이탈리아 특유의 교육풍토에 그 원인이 있다. 사진은 볼로냐어린이도서전 행사장 전경.

아동문학 분야의 교수나 연구원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친다. 2000년 볼로냐 도서전에서 다뤄진 주요 주제로는 '중등학생의 성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지식사회의 학습자원' '멀티미디어의 역할:외국어 교육의 집중훈련' '논픽션 아동출판:종이출판에서 멀티미디어로' '웹경제에서의 멀티미디어 학습' '나, 너, 우리 그리고 환경: 지방자치 교육에서의 환경교육' '에듀테인먼트:뉴 미디어를 통한 학습의 흥미' '질적인 유아교육' '아동도서관:창조와 경쟁' '육체와 여아:정체성, 관계 그리고 다양성' '노는 시간과 배우는 시간' '새로운 전망:문화, 언어, 영토' 등이 있다.

중소규모 출판사는 전문도서 출판에 주력해

이탈리아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유독 아동출판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교육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여타의 서유럽 국가에 비해 취학 전 교육(preschool education)이 강한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바 있는 몬테소리 교육과정도 그 대표적인 예다. 유아와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유아교육을 상대적으로 발달하게 했으며, 그 결과 아동출판계가 성장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볼로냐 도서전을 개최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탈리아 내에서도 볼로냐가 속한 에밀리아 로마냐주와 중부 이탈리아 지역은 유아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발달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모델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동서적을 포함한 이탈리아 출판계의 전반적인 동향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크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살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출판 대기업으로는 몬다도리(Gruppo Mondadori), RCS(Gruppo RCS Libri), 우텟(Gruppo UTET), 메사제리에 이탈리아네(Gruppo Messaggerie Italiane)를 꼽을 수 있다. 일종의 기업집단 형식으로 구성된 이들 4대 출판사는 출판분야에 따라 재정적으로는 연계돼 있으나 운영면에서 독립됐다. 전문서적보다는 대중소설이나 수필, 그리고 각종 잡지를 출판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의 출판업계는 전문출판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출판사의 이름에 따라 어렵지 않게 전문분야를 알 수 있는 사례가 더러 있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이런 성향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문화된 출판사는 비록 규모는 영세하지만 출판사의 브랜드명이 확고하고 독자층이 선명해 독자적인 운영과 유지가 가능하다. 가령 역사 분야의 경우 중세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출판사도 있으며 전문분야의 사전만을 펴내는 출판사도 있다.

로마제국의 영광과 중세의 기독교문화,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를 잇는 이탈리아의 역사와 전통은 출판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번역출판의 경우 전문가 번역을 고집하며, 번역의 속도보다는 전문성과 국내 수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번역이 번역일 수 있다'는 격언이 이탈리아에서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례로 1980년 미국에서 나온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동시에 다양한 버전으로 서점가에 나왔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십년이 지난 1990년에야 번역돼 출간됐다. 한편으로는 시사성이 강한 책이 독자에게 늦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번역에 권위가 있으며 번역서 초반에 수십쪽에 이르는 번역자의 논평이 포함되고 주석이 달려 무게가 실린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또한 신간의 종류와 통계 수치도 중요하지만 재판과 정정판의 문화가 건전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이는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 출판계 전반에 걸친 특징이다.

이상으로 볼로냐 아동도서전과 이탈리아 출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왔다. 물론, 이탈리아 출판계에도 취약점이 있다. 전통을 고수하는 방식이 신자유주의와 지구화가 넘실대는 출판환경에서 별 탈 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지나친 낙관일 것이다.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뉴미디어의 등장, 전자출판의 도입 등으로 이탈리아 출판계 역시 적지 않게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볼로냐 아동도서전의 예에서도 보았듯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대해 비판적 수용 자세를 갖춘 이탈리아 출판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다. ●